

1월 3주차 Q&A — 미래 통화 에너지, 달러의 운명

2026-01-12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1_02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첫 번째 Q&A — 미래 통화는 헨리 포드의 100년 앞선 통찰처럼 에너지 본위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. 블록체인·ESS 등장으로 화폐 3대 기능 중 두 기능이 실현 가능해졌고, 미·중 패권 분리는 진영 간 표준 통화로 에너지를 선택할 동기를 키운다. 다만 가치 저장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여전히 금이 우위. 한편 '달러 몰락 = 미국 주식 위험'은 통념의 오류 — 베네수엘라가 통화 105분의 1 토막에도 주가 1,000배 폭등한 것처럼, 미국 빅테크는 글로벌 영업이라 달러 가치 하락 시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난다. 진짜 위험 신호는 달러 몰락이 아니라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미국이 긴축·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때 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 4.5% 경계 / 5.0% 위기 단계.

01 핵심 골격

- 1 본위제 정의 —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들여 만들지만 에너지로 교환 보장 X → 본위제 자격 미달
- 2 헨리 포드 1921 에너지 화폐 — 100년 앞선 통찰, 1924년 정치 반대로 포기
- 3 일론 머스크 화폐관 — 화폐는 자원 효율 배분 데이터베이스, 진정한 하드 커런시는 에너지
- 4 블록체인 + ESS로 화폐 3대 기능 중 교환 매개·가치 저장 부분 실현 가능
- 5 가치 저장은 여전히 금 우위 — 엔트로피 법칙으로 에너지는 새어 나감
- 6 향후 4분화 진화 — 금(저장) + 종이돈(국내) + 에너지(국가 간) + CBDC/스테이블(디지털)
- 7 베네수엘라 Catastrophic Boom — 화폐 105토막 + 주가 1,000배, 미국 빅테크는 글로벌 영업으로 달러 헛지
- 8 달러는 종이돈 중 여전히 최강 (Fed 21% vs 일본 90%+) — 다른 종이돈 대비 달러 몰락 아님

9 한국 원화 미래 — 아베노믹스 평행이론, G9이 G2 따라가면 엔보다 더 악화 가능성

10 주가 상승 끝내는 진짜 신호 — 10년물 국채 금리 4.5% 경계 / 5.0% 위기 단계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2)

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(강의 § 13 시간 연장)

2026-05-08 4.38% — 강의 시점 4.15%에서 약 4개월 +23bp. 경계 4.5%까지 12bp, 위기 5.0%까지 62bp 여유.

강의 § 13 '시장 금리 자체가 정부·연준 의지와 무관하게 오르는' 신호의 진행 상황 검증. 연준이 작년 9월부터 기준 금리를 계속 내려도 10년물은 멈추지 않음 — 정부와 AI 관련 기업 채권을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신호. 회차 시점부터 12bp만 더 오르면 강의가 명시한 경계 경보 진입.

출처 · home.treasury.gov

베네수엘라 IBC 지수 + 인플레이션 (강의 § 9 시간 연장)

2026-05-08 IBC 5,663 (화폐 개혁 후 단위) — 1년 비교 +2,283.95%. 인플레이션 2026-03 649.47% / IMF 추정 682% (세계 최고).

강의 § 9 'Catastrophic Boom' 메커니즘의 실시간 검증. 마두로 체포(2026-01-05) 직후 단 두 거래일에 16% + 50% 폭등 — 통화 가치 추가 하락이 즉시 주가에 반영되는 정직한 곡선. 강의가 짚은 '베네수엘라는 거의 망했는데 주가는 1,000배 오른다'는 패턴이 한 분기마다 더 단단해지는 시점.

출처 · tradingeconomics.com

BoJ 자산 / GDP 변화 (강의 § 11 시간 연장)

2026-03 BoJ 자산 500조 엔 초과, 자산/GDP 90%+ — 강의 시점(2025-11) 105%에서 한 분기 QT로 약간 하락. 4대 중앙은행 중 최고 비율 유지.

강의 § 11 '엔화는 종이돈 중 가장 많이 찍힌 통화' 명제의 시점 검증. 한 분기 사이 양적긴축(QT) 진행됐지만 여전히 미국 Fed 21%의 4배 이상. 강의가 짚은 '달러 vs 엔화 = 달러 압승'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.

출처 · fred.stlouisfed.org

헨리 포드 1921 에너지 화폐의 그 후 (강의 § 3 사례 후속)

1921-12-04 New York Tribune 발표 — 머슬슬즈 발전소 + kWh 단위. 1921-12-06 NYT 비판 '비틀거리며 쓰러진다'. 1924년 정치적 반대로 포기.

강의 § 3 '원조 헨리 포드'의 역사적 디테일. 100년 전 같은 발상이 정치 반대로 좌절했고, 비트코인의 Proof of Work가 2009년에 같은 발상(에너지 소비 증명)을 다른 형태로 재구성. 회차의 '시대를 앞선 통찰' 평가가 외부 자료로 정량 검증되는 시점.

출처 · investing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**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모니터링** — 강의 명시 4.5% 경계 / 5.0% 위기. 정부·연준 의지와 무관한 시장 신호로 주가 상승을 끝내는 가장 정직한 지표.
- 02 **달러 vs 종이돈 격차 관찰** — Fed 21% vs BoJ 90%+ vs PBoC 35%. 달러 몰락은 금 대비이지 다른 종이돈 대비가 아님 — 종이돈 중 여전히 최강.
- 03 **빅테크 글로벌 영업 비중 인식** — 달러 가치 하락 시 빅테크 영업이익은 오히려 ↑. 미국 주식은 달러 화폐 몰락 헷지 수단 — 강의가 짙은 관점.

Q1 미래통화 에너지 분위제 가능성

에너지 분위제 원조 — 헨리 포드 (1921 에너지 어음)

일론 머스크 — 화폐 = 리소스 배분 데이터베이스

화폐 3대 기능 (교환·가치저장·가격척도)

다극화 — 국제통화는 하나만이 노멀 아니다

Q2 달러 지폐 몰락 vs 미국 주식 미래

베네수엘라 Catastrophic Boom (파멸적 상승)

미국 빅테크 경쟁력 — 베네수엘라와 차원 다름

Fanding @kpunch · qna_part1_02